

전북지역 2월 소비자심리지수 111.6

전월보다 소폭 하락...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112.1

전북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두 달 연속 110선을 유지했지만 상승 흐름은 다소 주춤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6으로 전월(112.0)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인 심리를 의미한다. 전북은 여전히 110을 상회하며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112.1로 전월

(110.8)보다 1.3포인트 상승해 전북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은 엇갈렸다. 현재생활형편CSI는 95에서 97로, 생활형편전망CSI는 99에서 100으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가계수입전망CSI는 103에서 100으로 3포인트 하락했고, 소비지출전망CSI도 113에서 112로 1포인트 낮아졌다.

지출 항목별로는 교양·오락·문화비와 교통·통신비가 상승한 반면, 의류비와 외식비, 교육비, 주거비는 감소했다. 내구재와 여행비, 의료·보건비

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됐다. 현재경기판단CSI는 96에서 98로, 향후경기전망CSI는 105에서 106으로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CSI도 96에서 98로 올랐고, 금리수준전망CSI는 100에서 102로 상승해 향후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소폭 늘었다.

가계 저축과 부채에 대한 평가는 소폭 변화했다. 현재가계저축CSI는 94에서 96으로 상승했고, 가계부채전망CSI는 96으로 전월과 같았다. 현재가계부채CSI는 99에서 101로, 가계부채전망CSI는 99에서 100으로 각각 상승했다.

물가와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물가수준전망CSI

는 140에서 137로 3포인트 하락했고, 임금수준전망CSI도 123에서 121로 2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주택가격전망CSI는 125에서 106으로 19포인트 급락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북지역 6개 시(인접 읍·면 포함) 4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377가구가 응답했다. 소비자동향지수(CSD)는 가계 재정상황과 경기 인식, 저축·부채, 물가 전망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이며,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이 가운데 6개 주요 지수를 종합해 산출하는 대표 심리지수다. /오상근 기자

“계사 환경관리 철저히 해야”

농촌진흥청, 봄철 환절기 맞아 관리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봄철 환절기를 맞아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닭 사육 농가의 철저한 계사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봄철에는 하루 기온 차가 10℃ 이상 벌어지고 환기 횟수도 늘어나면서 계사 내부 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지기 쉽다. 습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닭의 호흡기 점막과 국소 면역 기능이 약화돼 호흡기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는 신란을 저하나 증체 지연 등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와 습도를 함께 고려해 환기량을 조절해야 한다.

계사 내 공기질 관리도 중요하다. 암모니아 농도는 10ppm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5ppm을 넘을 경우 호흡기 자극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3,000ppm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환기 시에는 단순히 공기를 배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온도

농가 유형에 따른 맞춤 관리도 필요하다. 수동 환기 농가는 환기 과정에서 과도한 건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동 환기·환경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농가는 계절 변화에 맞춰 설정값을 점검해야 한다.

축종별 관리 요령도 제시했다. 육계(고기용 닭)의 경우 체중에 따라 최소 환기량이 달라지는데, 체중 1kg 기준 개체당 약 0.5CFM 이상의 최소 환기가 필요하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환기량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오상근 기자

전북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맞손'

전북지방환경청, 4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전북지방환경청이 24일 도내 4개 유관기관과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11일 '기후에너지 현장 대응 추진단' 출범 이후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 협업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관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국가적 목표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사회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지역 상생 기반 조성 △관련 산업 생태계 강화와 혁신기술

지원 등에 힘을 모은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을 지원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에너지 대전환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허가 절차 지원과 함께 주민 수용성 확보에 주력한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계통 연계에 대한 전력 인프라 확충과 계통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는 기술 지원과 재정 연계, 주민 참여형 RPS 제도 운영, RE100 이행 지원 등을 맡는다.

이들 4개 기관은 24일 14개



전북지방환경청이 24일 도내 4개 유관기관과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가 참여했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구성해 신규 사업 발굴과 장애 요인 해소, 주민 이익 공유 모델 개발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영향도 확대·개편된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기관 간 감성을 모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 관계자들도 주민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인프라 구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전북을 에너지 전환의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2025년 실적 3조7894억원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2025년도 종합건설사 실적 신고 결과, 총 기성실적이 3조7,89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1.7% 증가한 수치다.

한데, 1차 공사실적 서류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했으며, 2차 재무제표 서류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실적 신고는 종합건설 회사 78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753개사가 신고를 마쳤다. 27개사는 회사 사정 등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업체는 전년도 25개사에서 27개사로 2개사(8%) 증가했다.

올해 실적에서는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 악화로 확인됐다. 종합건설업 순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연간 실적 50억원 미만 업체는 574개사로, 전년도 572개사보다 2개사(0.3%) 늘었다.

실적 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한 절차다. 건설업체는 2025년도 공사실적과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2위 이상 업체는 전년도 2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2위는 신성건설, 3위는 한백종합건설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케이케이이앤씨가 4위, 세움종합건설이 5위를 기록했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전북특별자치도-KB금융그룹, 협약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23일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성주 이사장과 김관영 도지사, 양종희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KB금융그룹의 'KB금융타운' 건립 발표 이후 첫 후속 조치로, 세 기관이 지역 사회공헌 활동과 금융산업 육성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전북을 자산

운용 중심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국제금융컨퍼런스 공동 개최 △초·중·고교생 대상 금융교육 실시 △대학생 중심 금융인재 양성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이후 국내외 자산운용사 사무소 16곳을 전주에 유치했으며, 2018년부터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를 개최해 금융중심지 조성을 지원해왔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센터 개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박규순)이 지난 23일 전주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내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조성경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장, 양선화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홍기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화학 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수소저장용기 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을 축하했다.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센터는 탄소

섬유를 활용한 수소저장용기의 시험·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전문 시험평가시설이다. 총 사업비 210억원이 투입됐으며, 건축면적 4,377㎡, 연면적 1,548㎡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에는 △수소가스 반복가압 시험장비 △가스투과 시험장비 △파열시험 장비 등 총 8종의 첨단 시험평가설비가 도입됐다. 각 설비는 최대 길이 3.6m, 외경 0.8m 규모의 대형 수소저장용기 시험이 가능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중대형 용기에 대한 전문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오상근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2025년 실적 2조4338억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2025년도 전문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도내 3,146개 전문건설업체가 신고했으며 총 기성실적은 2조4,33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1.8% 감소한 수치다.

계의 마이너스 성장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물량 감소와 더불어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허용에 따른 수주 불균형이 겹치면서 도내 전문건설업

올해 도내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기성신고액 1위는 887억원을 기록한 토성토건(대표 김경중)이 차지했다. 2위는 508억원의 반석중공업(대표 김법중), 3위는 459억원의 삼신기업(대표 이종화)이 올랐다. 이어 준건설(대표 한상남·한준희)이 354억원으로 4위, 신안건설(대표 최덕현)이 306억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